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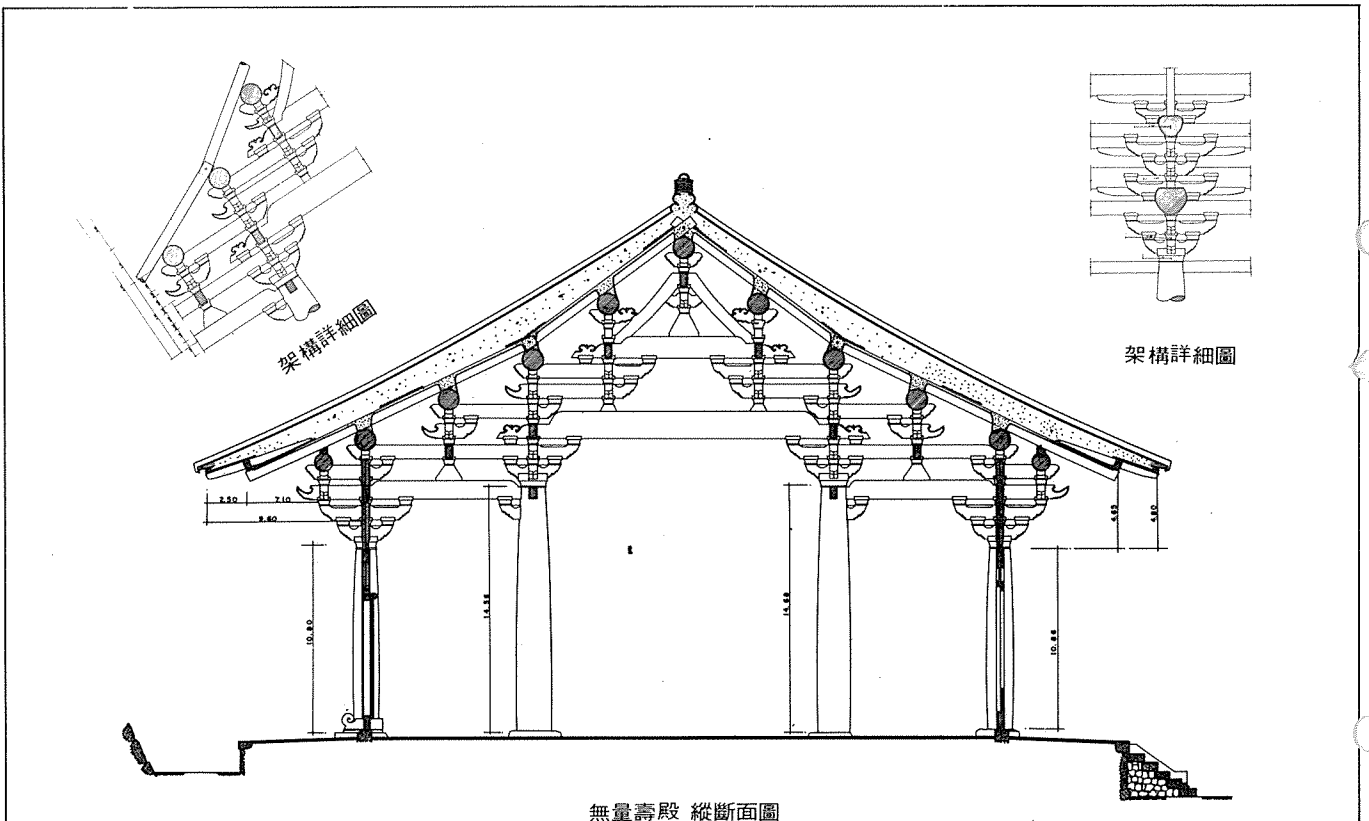
## 1. 總論

### ① 概要

한국의 古建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建立年代를 아는 現존의 유구와 유적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유구와 유적은 古代로 갈수록 稀少하여 찾을 길이 막연해진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분

명하게 정리하여 비교·검토하고, 또한 이의 기록과 보존 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옛기록을 찾아서 현실과 대조하고 현시점에서의 實測圖·사진·모형 등과 함께 상세한 기록도 갖춰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의와 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無量壽殿 縱斷面圖

② 韓國建築用語

한국 古建築에 관한 용어는 現代建築 용어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며, 또 개화기의 언어 소외와 문화 단절이 있었던 탓으로 用語定立에 더욱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용어는 古語를 제외하고는 한글인 우리말과 한자말이 상반되게 쓰이며, 이제는 여기에 덧붙여 영문을 비롯한 서구라파의 외래어까지 쓰이게 되어 어디까지가 우리말이고 언제부터 우리말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체성과 언어의 순화를 찾아 정립하는 것도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한글용어

- ㄱ. 집 - 사람이 거처하는 건물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다.
- ㄴ. 절 - 佛像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예배하는 집으로서 寺刹 · 寺院 · 佛寺 · 佛刹 · 梵刹 등의 한자말에 대한 우리말이다.

나) 한자용어

- ㄱ. 家(집 가) · 舍(집 사) · 屋(집 옥) · 宅(집 택) · 宇(집 우) · 邸(사처 처) · 寮(중의 집 요 · 僧舍)
- ㄴ. 堂(마루 당 · 正寢) · 殿(대궐 전) · 閣(층집 각 · 樓) · 院(원집 원) · 館(객사 관)

이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출몰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한자들은 복합어로 다종다양한 建物名을 이루고 있으나 현재 그 말들의 참뜻을 工學的으로 구분하기란 힘들 정도이다. 실사 한글말이 있었다 해도 지금처럼 한글이 쓰이지 않았으며, 眞書라 하여 한문자가 주로 쓰이던 당시에는 목수직과 기타 직공의 용어를 널리 쓰이던 한문자를 빌어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道理 등으로, 도리의 한문자는 도리 행(桁) 자이다.

그 이유는 일반 직공은 한문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으 며, 발음대로 적자면 쉬운 글자를 빌어서 음만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문자로 표시하되 발음을 한문자의 뜻으로 하는 것을 이두(吏讀)라고 한다. 그 한 예로는 벽돌(號窰) · 멀음중방(遠音中枋) 등이 있다.

建築用語는 따로 상세하게 정리하고자 하나 건축의 용도 · 규모 · 양식 · 구조와 공법에 따라 다종다양하므로 기회있는데로 정리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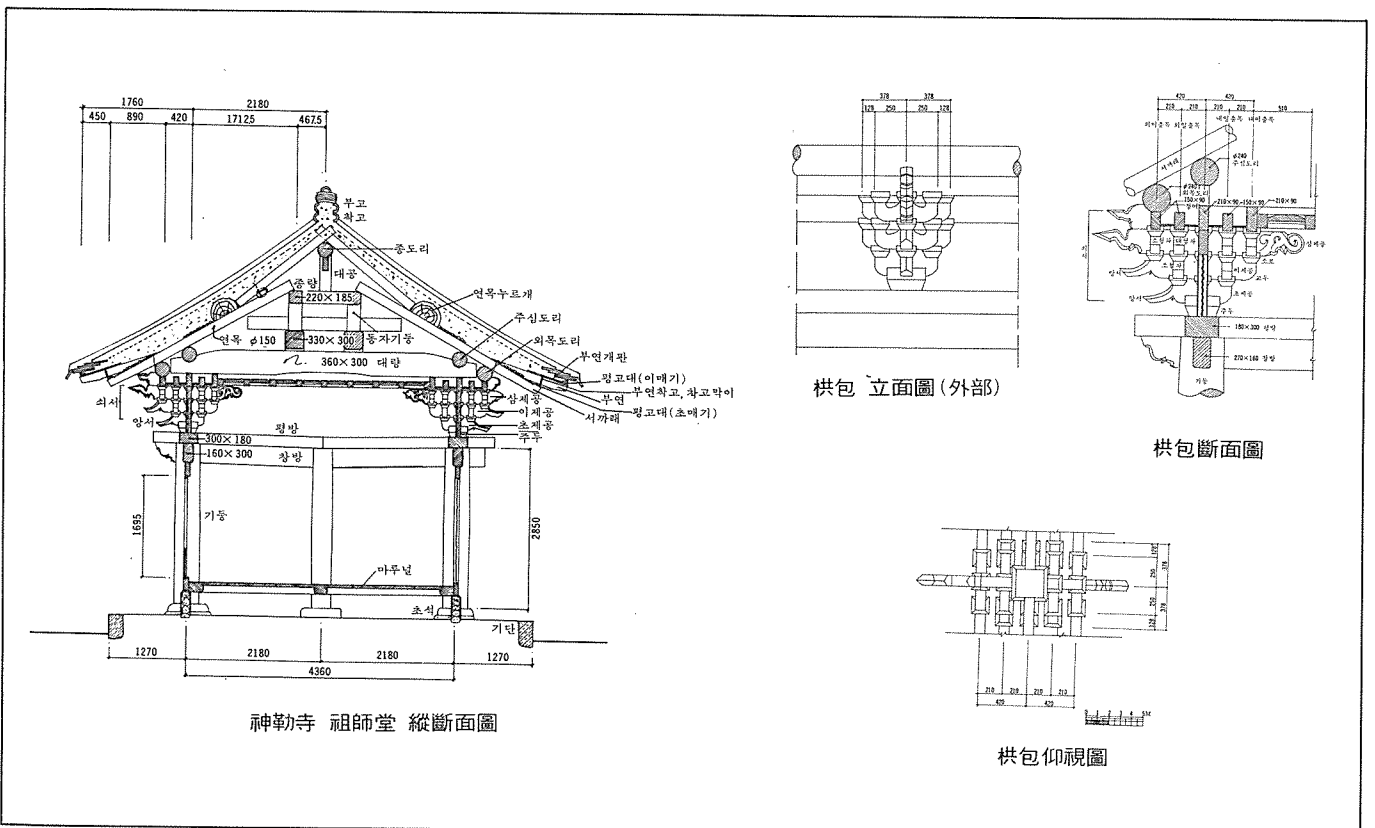
③ 古建築의 種類

현존하는 유구 · 유적으로서 건축물이 당초의 모습대로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 중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사찰이며 다음은 鄕校 등이다. 각 고을에 있던 客舍 · 衙門 · 監營 등의 부속건물마저 초창당시의 건물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이 있을 따름이다.

城郭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 도읍지나 요새지에 축성된 것으로서, 내구재인 석축은 흔하게 볼 수 있으나 木造建築物이 남아 있는 것은 드물다. 성곽은 궁성 · 도읍지 · 요새지 · 山城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養兵하던 사찰의 수호성도 있다. 그 한 예로 경기도 강화 전등사 주위의 三郎山城이 있다.

성에는 여담(女牆)과 각종 건물이 시설되며, 초루(譙樓 : 성문 위에 지은 누각)와 포사(砲舍 · 舖舍) 등과 같은 망보기와 방어 · 공격을 위한 시설들이 꾸며진다. 성곽은 얼핏 보기에 土木工學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건축적 ·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공학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성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實戰을 치른 것은 드물다.

亭子是 향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규모는



작으나 그 기능과 구조가 다양한 편이다. 臺榭는 높은 집 누각을 뜻하지만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하여 정자를 누마루 집으로 할 때가 많다. 그 외에 향리에는 옛 비석의 保護閣도 있다.

住家는 많은 예가 있으나 조선조 이전의 것은 거의 없다. 건축적인 유구로서 고려대(高麗代: 서기 936년~1392년까지의 약 500년간)의 고려 건축은 그 말기의 것으로 인정되는 안동의 鳳停寺極樂殿, 영주의 浮石寺無量壽殿과 祖師堂 및 예산의 修德寺大雄殿을 먼저 손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의 걸작들이며 最上代의 건축이다.

그 樣式은 柱心包식이며 多包系와 구조·가구법이 다른 것이다. 다만 조선조 중기 이후의 翼工系와 통하는 점이 있으나 익공식의 주심포에서 온 것이지 아니면 따로 창시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樣式的으로 살펴보면 완주의 花巖寺極樂殿과 같이 下昂式 栱包로 된 것도 있다. 즉 공포를 쓴 것은 위의 4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문의 그림은 이들의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들이다.

#### ④ 民家

민가는 일반적으로 栱包를 쓰지 아니하고 굴도리와 장여 및 소로로 修粧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가라도 격식이 높은 祠堂 또는 바깥 사랑채(外舍廊棟) 등은 두리기둥(圓柱·檻柱)을 쓰고, 굴도리(一道理·圓桁)와 주두·소로·보아지(梁奉) 등으로 수장되기도 한다. 일반은 민도리집으로 네모진 납도리(角道理·角桁)로 한다.

민가에서는 대개 목부에 단청을 하지 아니하며, 토분벽(土粉一) 정도로 한다. 이와 같이 단청을 하지 아니하고 목부의 표면을 그대로 둔 것을 백골집(白骨家)이라

고 한다.

민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네모기둥(角柱)으로 하지만 초가집에서는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얼핏 보면 원기둥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몸통이 가늘고 약간 흰재를 다듬어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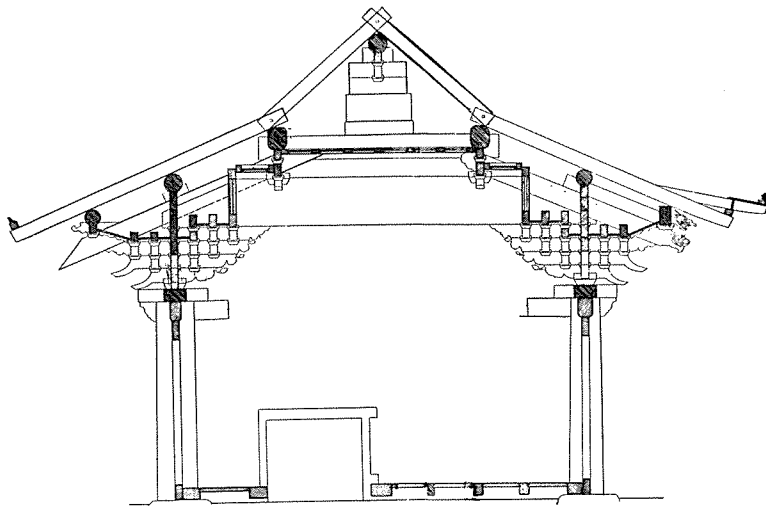
납도리 집이라도 단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것은, 큰모를 접어 쓸 때와 장방형 단면의 제재목으로 할 때도 있다.

초가집에서는 기와집에 비해 기둥과 서까래가 가늘며, 도리·보 등도 통나무재를 약간 다듬는 정도로 한다. 따라서 초가와 瓦家의 분재치수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만 와가라도 시대에 따라서 上代에 속하는 것은 기둥을 굵고 낮게 썼으나 후대에는 가늘고 높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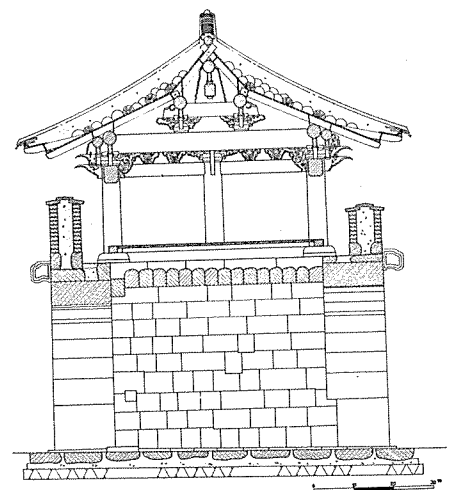
지붕물매는 서까래의 경사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데, 속담에 서당 건물은 4치 물매 이하로 하고, 향교의 물매는 5치 물매로 한다고 했드시 격식이 낮은 건물은 간사이(보의 길이)도 짧아 지붕면이 길지 아니하므로 물매는 느려도 새는 일이 적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민가 서까래의 물매는 4치 정도로 하지만, 초가에서는 그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초가라도 큰 비가 많이 오는 해안 지방에서는 약간 높은 듯한 것이 보통이다.

#### ⑤ 木材 이외의 建築

한국 고건축에는 대개 木構造로 된 것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 외에도 벽돌·석재 등을 써서 구축한 건물도 있다. 특히 고구려시대의 유구로서 평양부근의 구도읍지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건물(塼·磚·甗)이 나온 것은 건물을 塼築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花巖寺 極樂殿 架構圖



창룡문 塼단면도